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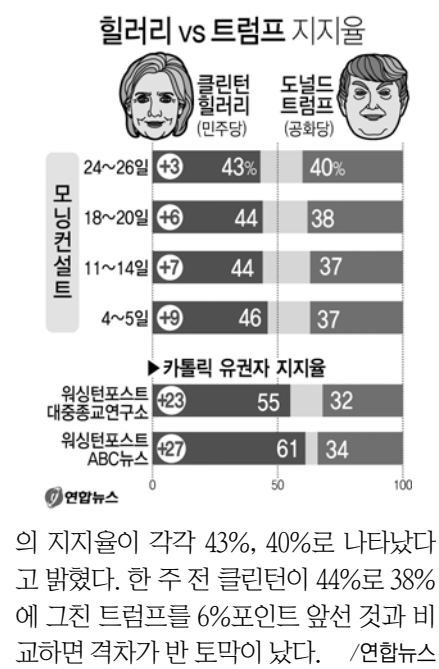
‘연습 벌레’ 힐러리... ‘TV쇼처럼’ 트럼프

대조적 TV토론 준비 모습 힐러리, 전담팀 가동 맹혼 트럼프는 골프장 담소 여유

올해 미국 대선 최대 분수령이 될 내달 26일(현지시간) 첫 TV토론을 앞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토론 준비 모습이 대조적이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펼쳐지는 3차례의 TV토론 승부에 따라 백악관 주인이 판가름됐던 만큼 두 후보는 1차 토론에서 기선을 제압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전체 선거인단(538명)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대선론에 올라탄 클린턴은 승기를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는 1억 명이 시정

하는 토론을 계기로 판세를 뒤집겠다는 복안이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클린턴은 인생 최대의 재판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참모들이 챙겨준 정책 자료집과 트럼프 측의 공격 대책 자료 등을 꼼꼼히 읽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토론 발언을 통해 자신의 본질과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 상당 시간을 할애해 리허설도 수차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조지타운 대학에서 미 대선 토론을 가르치는 로널드 클레인과 변호사 캐린 던을 중심으로 하는 TV토론 팀이 가동 중이며, 이들과 함께 클린턴의 최측근 정책참모인 제이키 설리번이 클린턴의 토론 연습을 돕고 있다.

이에 반해 아웃사이드 트럼프는 클린턴을 비롯한 전통적인 대선후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TV토론에 접근하고 있다. 그는 아직 TV토론을 위한 공식 조직을 가동하지 않은 채 일부 참모들과 가족, 오랜 친구 등 여전히 비공식 조언그룹에 의존하고 있다. 토론 준비를 위한 지난 22일 첫 모임도 뉴저지 주에 있는 그의 골프장에 모여 햄버거와 콜라를 마시며 방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캠프 총책임 스티브 배넌과 선대본부장인 켈리언 콘웨이와 함께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시너, 친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과 로저 에일리 전 폭스뉴스 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는 24~26일 유권자 2007명을 상대로 한 조사(오차범위 ±2%) 결과 클린턴과 트럼프



의 지지율이 각각 43%, 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주 전 클린턴이 44%로 38%에 그친 트럼프를 6%포인트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반 토막이 됐다. /연합뉴스



깃발, 잡아야 하는데... 한 남성이 28일(현지 시간) 몰타의 수도 발레타 산줄리안에서 열린 종교 축제 중 기름이 묻은 봉인 ‘고스트라(gostril)’ 위로 달려가 깃발을 잡고 아래 바다로 떨어지고 있다. 중세시대에 시작된 고스트라 게임은 기름이 묻은 봉을 올라 깃발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이다. /연합뉴스

“미국-EU ‘TTIP’ 협상 사실상 실패”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독일 부총리 “이전 폭 커”

독일 연방 대연정의 서열 2위 인사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 격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28일(현지시간) 공

개된 제 2공영 ZDF TV 인터뷰에서 “우리가 유럽인으로서 미국이 내건 요구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은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대연정 소속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의 당수이기도 한 가브리엘 부총리는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덧붙였다. 평소 거침없는 언변을 구사하는 편인 그의 이번 언급은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 당수

로서 대연정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TTIP 적극 추진 입장과 대비된다. 2013년 7월 개시된 EU와 미국의 TTIP 협상은 역대 8억 인구의 자유무역협정의 출현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어서 크게 주목 받았지만, 양측 간 이견 때문에 타결 시한이 계속 늦춰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퇴임 이전으로까지 또 다시 후퇴한 상황이었다. 특히 영국을 포함한 EU 28개 회원국 중 최대 경제국인 독일 국내적으로 보면 이 협정이 독일에 이익이나, 손해나는 물음에 손해 70% 대 이익 17%로 응답이 갈릴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하는 편이다. 주로 양측이 충돌하는 분야는 당사국 정부 단위에선 파생금융상품 규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 채택 여부 등이었고, 유럽의 시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선 식품과 노동 시장, 소비자 주권, 환경 표준 등이 꼽혀왔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또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는 우려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지 않지만 거대한 정치적 문제라고 평가하고, 브렉시트를 잘못 다루면 유럽은 지금보다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46 무제 사마염

사마염(司馬炎, 236-290)은 중국 서진의 초대 황제다. 자는 안제이고 시호는 무제다. 263년 촉한과 280년 오나라를 정벌해 천하를 재통일하였다. 사마씨가 세상에 권위를 드높이게 된 것은 할아버지 사마의 덕분이었다. 사마의의 자는 종달로 조조에게 신임을 받아 중신의 반열에 올랐다. 특히 촉의 제갈량의 5번에 걸친 북벌을 막아내 위의 사직을 구했다. 그러나 명제 조예가 죽자 조씨 가문의 견제에 극심해졌다. 대장군 조상 일파는 그를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 사마의는 조상 일파가 방심한 틈을 노려 249년 쿠데타를 감행해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권력은 큰아들 사마사와 둘째 아들 사마소에 넘겨졌다. 사마염은 사마소의 장남이다. 시종에는 “사마소의 속내는 지나

정치가 수·당까지 이어졌다. 무제 시대 황실과 귀족들은 한결같이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였다. 황실은 조상의 묘장을 각지에서 채벌해 은목재와 석재로 화려하게 조성하였다. 황궁을 웅장하게 지었고 만명이 넘는 궁녀를 거느렸다. 대신들 또한 호화로운 생활에 빠졌다. 태위 히중은 문이냐 수려의 위장을 값비싼 비단으로 장식했다. 석송의 사치는 천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무제는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그것이 멈추는 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궁녀들은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양이 좋아하는 깃털을 출입문에 꽂기도 하고 바깥에 소금을 뿌려 수레가 멈추도록 했다고 한다. 무제가 사예교위 유의에게 “짐을 한나라의 어떤 황제와 비교할만한가”라 물었다. 유의는 “환제와 영제입니다”고 답했다. “환제와 영제는 관직을 판 돈을 관의 창고에 넣었으나 폐하께서는 그 돈

천하 재통일 서진의 초대 황제

가는 나그네도 뻔히 들여다 본다”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 조만간 사마씨가 정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소문이였다. 사마소는 263년 환관 황후의 발호로 혼란에 빠진 촉한을 공격했다. 결국 후주 유선은 항복하였다. 265년 사마소가 죽자 사마염이 뒤를 이었고 위의 마지막 황제인 원제 조환의 선양을 받아 황제가 되었다. 국호를 진(晉)으로 정하고 낙양을 수도로 삼았다. 무제는 즉위한 후 양호를 영주도독으로 임명해 남하에 주둔시키고 오나라 정벌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양호는 둔전을 실시해 10년 먹을 양식을 확보했다. 익주사사 왕준을 용양장군으로 임명해 양자강 상류에서 수군을 훈련시켜 동오를 칠 준비를 갖추었다. 양호는 오나라 토벌을 무제에게 건의하였다. 무제는 두예를 장군으로 삼아 오나라를 정벌토록 하였다. 오나라는 손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간신 잠룡이 전횡해 국정이 어지러웠다. 중서령 호중은 투항을 권유하였다. 오는 망하고 280년 천하는 재통일되었다. 무제는 가축을 시켜 진나라의 울렁을 정비하고 주군의 군비를 대폭 축소했다. 위나라가 시행해 온 둔전제를 폐해 정전법, 과전법을 제정하고 세법도 고쳤다. 천하를 통일해 후한 말 황건의 난 이래 100여년에 걸친 분열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귀족 중심의

을 개인 재산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일을 가지고 말하면 환제와 영제만도 못합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무제는 조위가 황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왕실 일족을 너무 억압한 결과 정권을 잃은 사실을 반면 교사로 삼아 각지에 사마씨 일족을 왕으로 봉하였다. 280년 무제를 뒤이은 혜제가 어리석자 군사를 동원해 난을 일으키니 이것이 유명한 팔왕의 난으로 진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무제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후계자인 황태자가 우둔한 점이였다. 그는 후사를 황후 양씨의 아버지 양준과 숙부 여남왕 사마량 두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혜제의 어리석음은 천하에 숨길 수 없었다. 진서에는 백성이 굶어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씹어 없으면 어쩌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290년 4월 무제가 죽었다. 사서에는 “도량이 크고 돈후하고, 사리에 환히 통달하고 일을 도모하기를 좋아했다. 직언을 용납했고, 일찍이 사람들 앞에서 낮빛을 잃은 적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치를 범했고 어리석은 혜제에게 후사를 맡긴 것은 커다란 과오가 아닐 수 없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진행 물리사건, 지체된 안내문물 우송하여 드립니다.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광주전남 (062) **511-0444**

광주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